

연중 제 2 주일

가도서 P. 237 B해

제1독서(사무상 3, 3-10, 19)

제2독서(고린전6, 13-15, 17-20)

복음(요한 1, 35-42)

# 숲정이

발행인	범석규
인쇄인	이수현
주간	조성호
편집	한상갑

편집실 : 전주서서노송동560의6  
전주교구청 내 (전화 5098)

□ 강론



## 끊어진 그네줄

정태현 신부

성당 마당은 늘 장터처럼 시끄럽습니다. 가까운 공원에도 놀이터가 있으면 동네 꼬마들이 부득불 이곳에 놀러오는 이유는 유치원 놀이터 때문일 겁니다. 이 놀이터에는 미끄럼틀도 있고 시이소오도 있고 이름이 뭔지도 알 수 없으나 뱅뱅 돌아가는 기구도 있는데 뛰니 뛰니 해도 그 중에서 4인용 그네처럼 인기있는게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나가보니 철근으로 된 그네줄 하나가 툭 부러져서 엇가락처럼 휘어 있는게 아닙니까!

“누가 그랬어?”

근처에서 놀고 있는 애들에게 냅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일을 저지른 애가 있을리 없겠지요.

“상권이냐 그랬어요.”

상권이냐 누구네 집 아들놈인지 알 까닭이 없습니다.

성당 마당에서 노는 애들은 대부분 성당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입니다. 부러진 그네를 며칠간 유치원 벽에 세워 놓았습니다. 유치원 아이들처럼 얌전하게 앉아 그네를 탔더라면 그네가 부러질리가 없었겠지만, 그네를 발로 걸어차고 비틀며 노니까 부러지고 만 겁니다. 한번 부러진 그네는 그것을 부러뜨린 아이의 능력으로 다시 이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의 잘못으로 인해 유치원 꼬마들이나 다른 애들이 피해를 보니까 그대로 방치해 놓을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하느님과 인간 사이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죄는 인간이 짓지만 죄로 인해 망가뜨려진 하느님과의 관계는 인간의 힘으로 회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한 인간(=아담)의 범죄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봅니다. 그러나 그 인간의 범죄속에는 우리 각자의 죄악이 여실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상권이냐 부러뜨린 그네는 수많은 아이들의 범죄적인 놀이 태도로 그전부터 조금씩 금이 가 있었던 겁니다.

어찌됐든 분명한 사실은 이 죄악의 엄청난 세력을 인류의 이름으로 축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쟁과 평화 빈곤과 부유, 굶주림과 포식의 모순을 근본적으로 해결 하실 분은 우리가 아니라 그분, 곧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어린 양이십니다. (월명동 보좌신부)



## 계약과 엇장수 가위

계약은 인간의 사회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것이다. 물론 그 계약이 지켜진다는 전제 아래에서 말이다. 사람은 왼쪽으로 가고, 차는 오른쪽으로 달리며, 사람이 나 차나 빨간불이 켜지면 서야 하는 것도 계약서에 서명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분명한 계약이다. 하루에도 몇번씩이나 이 계약이 제대로 안 지켜져 생명을 잃는 것을 우리들은 잘안다. 이러한 계약이 하느님과 맺어질 때, 우리는 이를 성사(聖事)라고 말한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이 이 계약을 맺어 집을 빌리거나 고용되었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연장되는게 상례이다. 그래서 전세금을 올리고 싶은 집주인은 이미 계약되어 사는 사람에게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고 의사를 타진하는 법이다. 소위 우선권이 인정되는 것이다. 고용계약에서도 하자(瑕疵)가 없는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다시 연장되는 것이 사회통례이다. 물론 속된 꿈꿉이가 있어 모종의 흑막이 있는 경우는 별문제이다. 또한 상대방이 무릎을 꿇고 계약연장을 호소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자도 없는 상대방을 외면하고 궁지에 몰아 넣는다는 것은 호박이 보기싫다고 난도질을 하는 유취아(乳臭兒)의 철부지 소행에 불과한 것이다.

엇장수 가위 마음대로라면 더더욱 그렇다. 우리는 가끔 이러한 사람들을 소위 모모하다는 축에서 볼 수 있어 더욱 가슴이 아프다. 남보다 높다고, 있다고 큰기침이지만 하느님 앞에서야 그 얼마나 초라한 꼬락서닌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느님과의 계약이나 이웃과의 계약에 얼마나 신의와 성실을 가지고 지키는지 되돌아보자. 또 있다고, 높다고 해서 거드름을 피우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 숲정이 산책



힘있게 뛰자!



# 자유(自由) 안에서의 발전 (요약)

교황 요한·바오로 2세

두려워 하지 마시오! 개방하십시오. 그리스도께 문을 활짝 열어 버리시오. 국경선과 경제권(圈), 정치권 그리고 문명과 문화와 발전의 넓은 영역을 그리스도의 구원의 힘 앞에 열어 버리시오! 두려워 하지 마시오! 그리스도는 아십니다. 인간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그분만이 그것을 아십니다!

지금 우리는 갖가지로 인하여 장벽들을 무너뜨리도록 촉구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류와 민족들의 보편적 연대성에 대한 예리한 통찰, 인류의 공동 환경과 유산을 보호할 필요성, 군비로 인한 중압감과 죽음을 재촉하는 위협감의 감소 필요성입니다. 또한 다시 발견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알맞는 생활로 끌어올릴 대책을 강구하여 빈곤으로부터 구제할 의무, 그리고 공동노력에 사용할 새로운 에너지의 제공 가능성입니다.

교회가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해야 하는 첫째 봉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되었고,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심없는 가능성을 지녔으며 하느님의 부성(父性)안에서 근본적으로 이루어지는 형제 지간으로 얽혀진 하느님 자녀들로서의 자신들의 본질적인 존엄성을 사람들은 그분안에서 다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분안에서 그들은 자유스럽게 책임감있는 봉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두려워 하지 않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에 상관없는 분도 아니시며 경쟁하는 분도 아니십니다. 그분은 인간에게 있어서나 인간의 과학적·사회적 여러 분야의 업적에 있어서나 정말 인간적인 것은 어느 것이나 손상시키려는 분이 아니십니다. 교회 역시 상관없는 것도 아니고 경쟁하려는 교회도 아닙니다.

현대세계의 사목현장은 정치공동체와 교회의 관계에서 "교회는 그 직무와 권한으로 보아 절대로 정치공동체와 혼동될 수 없으며 아무런 정치체제에도 얽매이지 않는 동시에 인격 초월성의 표지요 수호자인 것이다"(76항)라고 선언했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을 하느님께 개방케 함으로써 어느 이념적 체제에서도 폐쇄되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즉 교회는 사람이 스스로에게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개방적이게 하며, 인류발전의 현대적 요청에 따라 새로운 차원의 어떤 것을 창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공동과업을 위하여 미리 조작된 모델 말고, 역동적인 유산-교리적이며 실천적 유산-을 제공합니다. 그 유산은 가장 가난한 이를 위한 사심없는 봉사의욕과 관심을 가지고서, 해신의 원천인 복음에서 자극을 받아

변천하는 이 세상의 상황과 접촉하는데서 발전됩니다.

(참조...노동현장 "레를 노바툼" 반포 80주년을 맞이하여, 교황 바오로 6세 서한) 전체 크리스찬 공동체는 이런 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의회는 가톨릭 공동체로 하여금 국가간 사회정의가 요구되며 촉진되어야 할 영역의 확장을 목적으로 전(全)교회적 기구 신설을 기회있을 때마다 갈망했고, 바오로6세께서는 <교황청 정의평화 위원회>를 신설하여 이를 구현화시켰습니다. 여러분은 봉사정신으로 그리고 주교회의와, 또한 이런 문제해결을 같이 추구하는 여러 조직체들과의 대화-발전에 꼭 필요한 것-를 통하여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상과 행동에서 크리스찬 "일치를 촉진할 수 있는 협조 형식을 지칠줄 모르게 탐구하며 적용시킴으로써 조(超)교회적 정신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처음으로 이렇게 평강한 노력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두드러진 결과에 대한 올바른 평가는 비록 불충분하지만, 반드시 현재의 망서림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국제공동체란 선에서의 각 민족의 국내생활에 있어서, 또 기본공동체들이란 선에서의 새로운 삶의 길을 착안하고 구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착수된 과업이 꼭 완성되어야 하는데 이로 인하여 제기되는 제(諸)문제들을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교회가 기대되는바 희망의 말씀을 들려주고 어떤 발전을 위해서나 없어서는 안되는 정신적·도덕적 가치를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기 위하여, 교회는 인내심과 동정심을 가지고 사람들의 말과 모든 차원에서 이 과제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는 기관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극복하여야 할 방해물들을 판단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변혁(變革)이 요구되는 현실적 요령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근본적인 가난, 그리고 불의로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우선적인 관심은 확실히 교회와 기본적으로 관련된다는 문제이며, 마찬가지로 희생을 요구하기 위해 본질적으로 개인적이고도 사회적인 자유와 권리-이것이 없으면 사람은 즉시 종말에 이른다-를 희생시키지 않게끔 유념하는 발전형식 추구에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지쳐빠져 기쁨을 모르는 발광적인 소모성에 결정타를 가할 수 있는 확산과 삶의 방도를 제시하는데 선봉자가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주님께서 정의와 평화의 길을 걷는 우리 형제들을 도와주소서!

(78년11월 11일, 교황청 정의평화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 한자들에게 하신 연설문의 일부 요약, 교구 사목국 제공)

## ◆ 3년동안 뒷손을 보아드립니다 ◆

가정용목욕탕, 운수, 난방시설 및 수리전문. 보이라판매 본사직영 호남출장소가 전주로 옮겨졌습니다.

### 한국 流 운수 온돌 공사

(본사 직영 호남 출장소)

전주 ⑤ 4341 군산 ⑤ 3032 이리 8629

한 동 압 (모여세)

빛과 소금이 되시오! (교리교사출신 우대)

## 4·5급 공무원(주·야간)

<행정·검찰·세무·경찰·3사 은행반>

이리역전 신탁은행 3·4층(☎ 5943·8629)

이리 경 문 학 원

원장 한 정 삼



# 공소(公所)가 공소(空所)로

—공소사목, 무엇이 문제인가?

김 병 열 신부

10년전만 하더라도 공소(公所)에 미사가 있는 날은 썩썩한 젊은 숨결을 의식하는 날이었다. 햇살이 퍼지기도 전에 걸음발이 좋은 젊은이 한 둘이 미삿짐을 가지고 와서 아침을 같이 먹고 공소길을 떠나는데 상례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사이에는 그 모습이 달라졌다. 젊은이라고는 대통령이 사는 동네에 가면 벌어먹기가 좋다고 떠나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는 나이먹은 회장님들이 헛기침을 하면서 뺨뺨을 지고 나서게 되었다.

그래도 아직은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관습이 한 둘은 남아있다. 수란(水卵)을 걸드린 간단한 술상이 그 하나이다. 또 하나 웃을 수 밖에 없는 것은 명석을 둘러놓고 디딤돌 돌을 놓은 축간(圓間)이다. 공소 교우들이 최대의 정성을 들여 만든 번소이지만 흔적을 남길 수 밖에 없는 사실인지를 쉽게 디딤돌을 밟을 수 없는 문제가 남는다. 뚝뚝산으로 발걸음을 돌리다가 어린아이들에게 꼬리를 잡혀 고통을 당한 에 또한 허다하다. 모처럼 만나는 신부와의 시간을 갖기 원하는 공소교우들을 대하다 보면 언제 되는 피곤, 음식을 바꾸는 데서 오는 이상소화, 교우들의 정성을 의면할 수 없는 과식들이 가져오는 병폐 등이 축간행을 재촉하기에 더욱 그렇다.

요사이 공소의 모습은 어떠한가? 신타크로스 할아버지와 신타 할머니가 대부분이고, 생고구마를 깨무는 아이들 몇이 있을 뿐이다. 옛날에는 두 세 대의 미사를 지내야 했는데 이제는 한 대로도 족한 공소(空所)가 되어 버렸다. 금년 가을만 하더라도 어린이 영세자가 분당과 공소를 통털어 두명뿐이었다. 아니 놀랄 수가 없었다. 가족계획 특장감이 아닌가?

할아버지들은 한탄가(恨歎歌)를 연발(連發)한다. 문답도 없애지고, 기도문도 줄어들어 판공이라고 해야 배울게 없단다. 어려운 집안살림 때문에 겨우 국민학교 졸업하고 객지에 나가 돈벌고 있는 손자들도 문제란다. 모처럼 설이나 주석이라고 집에 오면 “성사 좀 보라”는 어른들 말씀에 “성당에 가면 누가 밥주나?”고 되묻는다는 것이다. 더욱 한탄스러운 것은, 다는 그렇지 않지만, 서울가서 눈맞은 딸이 애까지 안고 와서 혼배해야 하겠다는 것이란다. 한숨쉬인 말세론에 주름살이 더 패인다.

가난과 질병, 그리고 무지가 판을 치는 공소(空所). 공소(空所),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제도를 잃은 유성처럼 어디로 가려는지? 주여, 왜 유독 공소가 더 그래야 합니까? 주여, 어쩌다가 매캐한 연기와 먼지가 가득한 서울에만 돈이 물려서 사람들은 그곳으로만 모이나요?

주여, 용서하소서. 왜 진작 공소에 손을 대지도 못하였는지, 이 무능을 용서하소서. 주여, 공소선(公所船) 침몰 3분전, S·O·S. 그러나 아직 3분은 남아 있습니다. 이 3분내에 공소선을 구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소서.

(수류분당 주임신부)

## 요심이 (285) 김병열



**결 (축) 혼**  
김삼봉씨 차남 문수(안드레아)  
한용조씨 매 정 희  
일시 : 79. 1. 21 오전 11시 30분  
장소 : 가톨릭센터 3층 강당  
주례 : 오 현 택 신부님

◆경운기·분무기·전자동 탈곡기  
트랙터·각종 농기구일절 도산매  
**대동공업(주)전북총판**  
대표 오 승 열(바오로)  
이리시 평화동 20번지  
☎ 9000, 9001, 9002, 9003번

금·은·보석·시계  
교우들의 연말 연시 선물은  
**황 시 계 점 으 로**  
황 의 선(아오스당)  
□전주시 서노송동 646 육교옆  
☎ ③ 3 2 5 2

**직 원 모 집**

1. 자격 : 신체 건강하고 외모단정한 신자로서 상주 기거할 수 있는 여성
2. 연령 : 만 16세이상 20세미만
3. 학력 : 국졸 이상
4. 모집인원 : 2명
5. 접수마감 : 1979. 1. 31일 오후 5시까지
6. 면접 : 1979. 2. 1. 10시
7. 월 보수 : 초봉은 30,000원 이상이며 능력에 따라 우대함

전주 가톨릭센터 관장

금·은·보석·고급시계는  
전주 남문옆 교우집으로 오세요  
**미성당시계점**  
장 금 태(방지거)  
☎ 2-3301 (자택 2-8548)

(축) 개 업  
부 안 육 약 국  
서부 정류소 앞. 전화 3337  
약사 육 안드레아(진수)  
※육약국은 교우를 위한 약국입니다



1. 사도회 임원 연수회...17(수) 오후 1시 반~19(금) 정오, 가톨릭 센터
  - ① 대상자...회장단 1명, 선교·전례분과 위원장 각 1명씩 계 3명
  - ② 회비...1인당 5,000원(단, 고창·금산·남원·무주·순창·장계·장수는 4,500원씩)
  - ③ 등록시간...17(수) 오후 1시 반~2시, 시간 엄수 바람
2. 교구 중 고등학생 연합회 총회...21일(일) 오전 10시, 가톨릭 센터
  - ① 제21회 연합회 회장단 입후보 희망자는 본당 신부의 추천을 얻어 1월 20일까지 등록할 것
  - ② 각 본당 회장단 및 지구장은 1년간 사업보고서 3부씩 지참할 것
3. 대학생 연합회, 졸업생을 위한 9일기도...15일(월)~23(화) 매일 오후 5시, 해성학교 순교자 현양탑 앞
  - ① 가톨릭 대학생 연합회 회원 여러분의 빠짐없는 참석 바람
  - ② 준비물...기도서, 묵주
4. 신태인 본당 전화번호 변경...2024번으로
5. 신령교례회시 수첩 못받으신 분은 본당 사무장님께 보내드렸으니 찾으시기 바랍니다
  - 순정이 전화놀이 성급, 본당
  - 법석구 신부 5천원, 덕진 청년회 2천원, 화산본당 5천원, 실무자 연수회에 참석한 사무장 일동 13,190원

(중앙)

전화 ③3651 3652 3874

주임 신부 서용복  
보좌 신부 오영배  
보좌 신부 이영배  
사도 회장

1. 우리아: 14일(일) 오후 2시(강당)
2. 상지회: 17일(수) 오후 6시
3. 1979년도 교무금을 수입하고 월별로 납부합니다
4. 4개분과위원 선출
  - ① 재경-박영근, 김형택, 엄관섭, 양쌍수, 윤팔만  
안재홍
  - ② 전례-함문권, 김옥기, 박노춘, 임연희, 김계영
  - ③ 선교-김옥기, 임경택, 이강호, 윤영천, 손복자
  - ④ 봉사-강수남, 강복래, 허정호, 강정래, 서화자  
조용호, 이정자

□ 지난주 봉헌금: 195,586원

(노송동)

전화 ③7032

주임 신부 공아영  
보좌 신부 권영성  
사도 회장

1. 사도회 확대회의: 1월 21일 오전 11시
  - ※ 참가대상: 사도회 임원(회장단, 위원장 및 위원) 각 단체의 장, 구역장, 공소회장, 반장
2. 중 고등학생 졸업축하식: 1월 21일 오후 2시(구강당)
3. 어머니 미사시간 변경: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
4. 어머니 합창단 새임원: 단장-최프리스카, 부단장-김가타리나, 서기-서레레사, 회계-양베로니카, 섭외-최안젤라
5. 신우회 월례회의: 오늘 저녁미사 후(8시)

□ 지난주 봉헌금: 92,830원

(덕진)

전화 ③2182

주임 신부 서석기  
보좌 신부 강덕형  
사도 회장 유제상

- ※ 2월중 공동체 묵상회 개최예정: 선착순 50명  
3월중 성령세미나 개최예정: 선착순 보좌신부님께
1. 봉헌금 수입현황
    - 79년도 봉헌금 예산액: 8,283,912원,  
주예산액: 165,678원, 현재 본당 수입세대: 159세대  
미수입세대: 123세대, 현재신입액: 4,702,000원,  
미수입액: 3,581,912원
  2. 감사합니다: 예비신자(양상열씨) 석유스토브 기증
  3. 학생회 임원회: 14일 공식미사 후,  
정기총회: 2월 4일
  4. 성당의자 카바 신입증: 보좌신부님께 수입 바람
  5. 78년도 결산
    - 예산액: 8,525,984원, 결산액: 6,349,920원,  
지출액: 6,287,250원, 잔액: 61,668원
  6. 본당 젊은이 단합대회: 1월 21일(일)  
모악산 경유 금산사, 600원, 주최: J. U. C

□ 지난주 봉헌금: 34,677원, 교무금: 84,220원

(복자)

전화 ③5238

주임 신부 김종택  
사도 회장 조성호

1. 성우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장동주형제 덕)
  2. 봉헌금 봉투: 많거나 적게 책정되신 분은 사도회를 거쳐 신부님께 문의 바람
  3. 병자영성체: 16일(화)
  4. 보좌신부님 사제관 비품헌금  
김현경(베드로) 100,000원 감사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199,210원

(서학동)

전화 ③2276

주임 신부 오현택  
사도 회장 황인구

1. 선교주일: L.M 간부회 10시미사 후
2. 사도회 임원개편
  - 고문: 박장춘, 강남준, 장은수, 한형수, 오상팔,  
박종갑,  
회장: 황인구, 부회장: 정만성, 김용환,  
선교: 오노균, 차장: 차상열,  
전례: 김한기, 차장: 강성식,  
봉사: 조동근, 차장: 장기호,  
재경: 박형식, 차장: 이용안, 사무장: 김제열,  
감사: 이정빈, 김광수 수고 많으시겠습니다.
3. 사도회 월례회: 오늘 10시미사 후
4. 축! 결혼 17일 오전 10시  
신랑-이강우, 신부-이영란

□ 지난주 봉헌금: 60,130원

(술정리)

전화 ③7366

주임 신부 이대권  
사도 회장 이강노

1. 교리교사 피정: 1월 15일(교구청)
  2. 사도회 임원 연수회: 17일-19일
  3. 신축기금 수입해 주시길 바랍니다(반상회 끝난구역)
  4. 반상회 일정: 진북2동 6반·7반·태평동·금암동
  5. 성당 신축금 회사해 주신분(다음주에 발표)
- 지난주 봉헌금: 17,230원

(전동)

전화 ③3222

주임 신부 김환철  
보좌 신부 이순성  
사도 회장 유석

1. 자모회·성화회: 10시미사 후
2. 장우회: 저녁미사 후
3. 성가정회: 월요일 오후 2시
4. 예비자 교리: 주일 10시미사 후(김수녀님),  
수요일 저녁미사 후 7시 30분(권수녀님)
5. 제 6차 교리교사 정기총회 실시  
일시: 1월 14일 10시미사 후,  
장소: 주일학교 교무실

□ 지난주 봉헌금: 177,365원

(파티마)

전화 ③0915

주임 신부 문정현  
사도회장 채수현

1. 성령세미나: 1월 30일부터 매주 화요일 7주간  
장소: 파티마 성당, 시간: 오후 7시, 회비: 3,000원
  2. 바오로회: 주일 10시미사 후(문태현씨 댁에서)
  3. 사도회: 오늘 저녁 7시미사 후
  4. 레지오마리에 L.M 년총친목회: 1월 20일 밤 7시
  5. 예비자 교리  
직장인: 목요일 7시미사 후, 일요일 저녁미사 후  
일반인: 목요일 오전 10시, 일요일 공식미사 후  
연중 제 3주일(21일)부터 시작합니다
  6. 미사시간 변경  
주일: 10시 공식미사, 오후 1시반-어린이미사,  
미사후 교리, 오후 7시-저녁미사  
토요일-오후 4시 중·고생미사 및 교리
  7. 구경 조상을 위한 미사: 1월 27일 오후 7시
- 지난주 봉헌금: 47,470원